

高卒초임 大卒의 80% 육박

학력간 차이 줄고 직급격차 늘어 평균인상률 작년比 0.6%p 높아

經總 1,043개업체 조사

올해 임금인상률은 평균 8%로 지난해의 7.4%보다 높아졌으며 학력간 임금 격차는 줄어든 대신 직급간 격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올해 임금협상이 완료된 종업원수 1백인이상 1천43개 광공업·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'95년 임금조정 실태'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
◇임금인상률=통상임금 기준 평균 8%(호봉승급분에 의한 평균

기업규모별 임금인상률·성과급 지급현황

(괄호안은 94년)

종업원수	1백~3백인 사업장	3백~5백인 사업장	5백~1천인 사업장	1천인이상 사업장	평균
임금인상률	9.0 (8.6)	9.7 (8.2)	9.6 (7.3)	7.4 (7.1)	8.0 (7.4)
성과급지급 비율	47.9	52.3	44.9	67.8	49.9

※단위: %, 성과급은 전체 조사대상 업체중 지급업체수 비율

임금상승효과 2.1%는 제외)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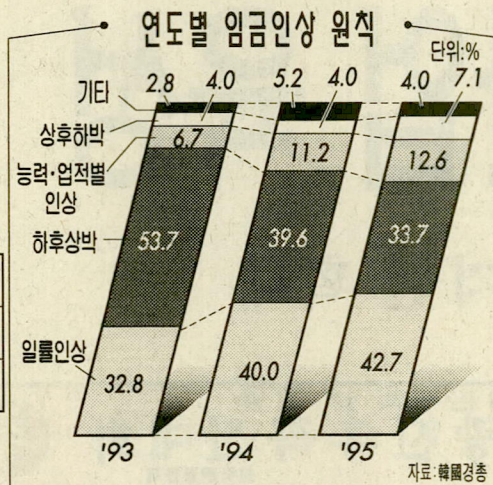
종업원수 1천명이상 대형사업장 인상률이 7.4%로 가장 낮았고 1백~3백명 업체(9%), 5백~1천명 업체(9.6%), 3백~5백명 업

체(9.7%)의 순이었다.

◇성과급=조사대상의

꼭 절반인 5백21개사가 성과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으로 조사됐다.

특히 1천명이상 대형사업장의 6



7.8%가 성과급을 지급기로 한 반면 1백~3백명 사업장은 지급업체가 47.9%에 그쳤다.

◇직급·학력간 격차=하후상박(下厚上薄)인상업체 비중은 줄어든 반면 상후하박(上厚下薄)이나 전직원 일률인상, 개인별 차등인상(연봉제 등 능력·업적 반영)은 일제히 비중이 늘었다. <그림 참조>

학력간 격차는 축소돼 고졸 초임은 대졸 초임의 76.1%(94년)에서 79.4%(95년)로 높아졌다.

직급별 평균 초임(상여금 제외)은 부장 1백71만원, 차장 1백47만원, 과장 1백27만원, 대리 1백2만원이고 신입사원의 경우 대졸 70만원, 전문대졸 61만원, 고졸이 하는 55만원 수준이다.

<閔丙寬기자>